〈제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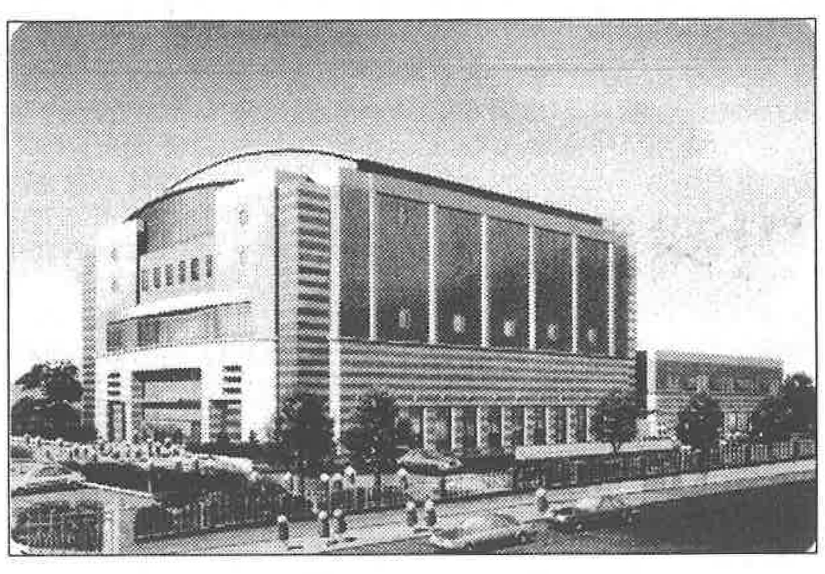
함·즐·함·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12:15)

97교회 표어
"예비하라"
(눅 3:4)

발행 : 출판부 (본 선교지는 두 달마다 발행됩니다) 1997년 9월



대강당(김마리아회관)및 수련관(김필례관) 조감도

◇공사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388평
◇공사기간:1997.8.5~1998. 9.
◇설계 및 시공회사
설계:우리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귀영 집사)
시공:강산건설주식회사 (대표 박재준 집사)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재 철 목사 (1997.8.5 오전 10시 정신여고 대강당 기공 예배 이사야 43:19~21)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날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머리에 떠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뜻하지 않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던 일을 의미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여고 강당과 수련관 기공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행하는 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이 일을 이 땅 위에 이루셨다면 혹은 20년 후, 30년 후에 이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새 일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당신의 때를 지금으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일을 행하는 도구로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큰 집은 크고 당당한 마음, 높은 마음으로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새 일은 오직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강당과 수련관을 드나드는 사랑하는 우리 미래의 정신의 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수를 마실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 말씀의 증인들, 복음의 사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건물은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지지마는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진척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강당과 수련관을 드나드는 사랑하는 우리의 딸들이 영원토록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면에 계속〉

누가 말해줬습니까?

김화수 목사

지난 1월말경 저희 교회와 해외 형제 관계인 캄보디아 이성민, 김창숙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탐방차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첫날밤을 보낸 후 수요일 새벽 잠을 깨어 시간을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세면 후 요한복음 8장을 묵상하며 기도분을 준비했습니다.기도문을 준비한 것은 기도 모임 멤버들의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성민, 김창숙 선교사님이 섬기는 공동체 모임에서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새벽 기도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멤버들이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는 소문을 들은 터인지라, 제게 기도를 부탁할 경우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거리면 창피할 것 같아서 영어 번역본인 N.I.V성경 요한복음 8장을 펴놓고 영어로 기도문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5시 10분경 기도 모임 장소로 나가서 잠시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저를 포함해서 9명의 멤버들이 이미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 2~3분 전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옆에 앉아 있던 김창숙 선교사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모임 시간에 요한복음 8장 21~30절 말씀을 나눈다는 것을 누가 말해줬습니까?"제가 N.I.V성경 요한복음 8장을 펼치고 그 사이에 기도문을 꽂아 둔 터라, 그것을 본 김선교사님이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 날 새벽 기도 모임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1~30절까지였던 것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중에서 구약 1331페이지, 신약 423페이지 총 1754페이지 중에서 요한복음 8장 21~30절이 그날의 본문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지켜 보시고 계시는 주님이 너무도 뚜렷하게 다시 한번 느껴지고 체험된 것입니다.

이성민, 김창숙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여 지방에 여러 교회를 개척하셨고 거주지인 프놈펜 시내에도 여러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새벽에 모이는 이 기도 모임 또한 두 분 선교사님의 집중적인 양육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은 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여 기도 모임 때마다 성경을 순서대로 본 후, 서로 느낌을 나누고 말씀에 비추어 함께 기도를 해왔는데 그 날의 성경 본문의 순서가 바로 요한복음 8장 21~30절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과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던 그 새벽 기도 시간의 캄보디아 교인들을 언제까지라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말해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간섭하시며 바로 이'누구,가 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1면에서 계속〉

강당과 수련관은 돈의 힘으로 완공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은 언제나 기도에 의해서만 완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낮은 마음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택정하셨던 이곳을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을 위한 아름다운 가나안으로 일구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김마리아 선생과 김필례 선생 같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들이 배출될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새 일을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믿으시고 이 때에 이 일을 시작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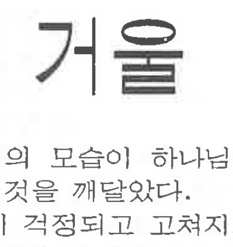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일을 진행시켜 나아갈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완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 이 강당과 수련관이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제2의 김마리아 선생과 김필례 선생 같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신앙의 어머니들이 배출되는 신앙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다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에스더의 수산궁이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소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마리아의 나사렛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거울



한윤경 장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세 아들이 어릴 적에는 별문제 없이 잘 자라 주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해외 출장이 빈번했고, 큰 아이가 사춘기쯤 되었을 때는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면 큰 아이 문제로 걱정이 되곤 했다. 아이들이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자라주길 원했으나 중고 시절에는 내 뜻과 어긋난 행동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아이와 마찰도 많았다. 당시 선데이 크리스천으로서 해외 출장을 핑계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 한 때가 많았고, 더구나 교회가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불평이 많았었던 때였다. 그러나 스스로는 작은 욕망 하나 억제하지 못하여 담배도 계속 피웠고 업무를 핑계 삼아 술집도 드나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큰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내 모습인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아이의 행동이 걱정되고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뿐 나의 습관이나 나의 행동을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은 쉽게 들지 않았다.'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닫고 좋지 못한 것을 고치게 하라고 큰 아이를 도구로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한동안 나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바르게 잡아가면, 그 동안 아이는 아무 말썽 없이 잘 생활해 갔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고 또 행동이 흐트러질 때는 나의 행동 또한 정리되지 못한 것을 깨닫기를 얼마나 반복하며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던 중 내 생활을 바로 잡아 보겠다는 결심으로 술과 담배도 끊고 생활 주변을 정리해서 겉으로는 바로 잡혀 가는 듯했으나 교회 생활만은 계속 불만이었고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기로 결심하고 근 일년 동안을 배회하다가 주님의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 온 후로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고 차츰 변화되어 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어느 땐가 아이와 대화하던 도중 아버지한테서 어떤 것이 빠져 나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아이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 욕심으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말씀을 들으며 나는 오직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의 아이의 문제는 별일도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문제로 느끼게 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다.

요즘은 큰 아이의 생활을 보는 것이 바로 나의 생활을 보는 것이 되었다. 어쩌다가 안좋은 것이 눈에 띄거나 느껴질 때 바로 내 자신을 돌아 보는 것이다.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동적으로 아이의 생활을 바로 잡아 주신다. 큰 아이는 사춘기를 지나 오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때를 지나온 것으로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

내 행동이 올바르면
큰 아이는 아무 말썽 없이
잘 생활해 갔고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내 행동이
흐트러질 때는…

하나님께서 세 아들을 맡겨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인생의 거울로 삼아 주신 것에 더욱더 감사 드린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보다도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서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신앙서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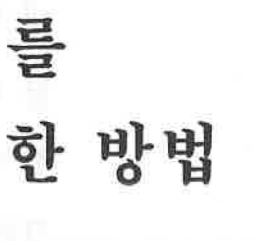
〈집사님 양육은 이렇게 한다〉
▲나는 요즘 교회를 옮기고 싶다
김순애 지음 두란노

▲청소년 청장년을 위한 주제별, 절기별 예화집

〈나는 건강을 이렇게 되찾았다〉
▲병원을 포기한 사람들
고달삼 지음

〈나환자 재활촌 용호 마을의 이야기〉
▲잊혀진 사람들의 마음
김호석 지음 홍성사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확실한 방법



정성기 집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크리스천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크리스천들은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크리스천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저는 이 평범한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몇년전 주일 예배시 설교가 거의 끝날 무렵 목사님께서 지금 이곳에는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 드리는 곳에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정성껏 예배 드리는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단지 크리스천으로서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목사님의 말씀을 청량제로 듣고, 일주일 동안 지은 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예배에 참석해 온 저로서는 커다란 깨달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후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록 조그마한 일이지만 안내로 봉사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예배당 가득히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믿음도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 속에 더욱 확고하게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에 앉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임하는 이같은 진지한 모습을 대할 때마다 저 자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들은 그날의 예배에서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예배가 시작된 후에 예배당에 들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도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안도와 만족은 본당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 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는 바람과, 먼저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뒤에 오실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쉽게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쪽부터 조금씩만 좁혀서 앉는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날의 예배는 예배 드리는 성도님 모두가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네와 나그네

세상 놀이터에 그네가 있습니다.
철수가 와서 탑니다.
영수가 와서 탑니다.

철수는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영수도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철수는 영수에게 지지 않으려고
좀더 좀더 올라갑니다.
영수는 철수에게 지지않으려고
조금 더 조금 더 올라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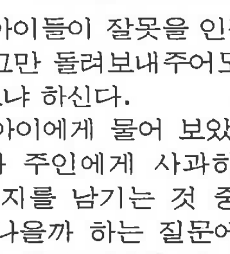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철수야, 영수야 저녁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 내려 오렴.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황혼이 되었습니다.

그네를 탔던 철수와
그네를 탔던 영수,
나그네 길을 떠나
주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 충 길 집사 1997. 7. 21.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박형기 집사

퇴근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면서 "아차 내일의 야구표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실은 가족 모두 야구장에 갈수 있도록 선물로 받은 것인데, 큰 아이와 처는 못가게 되어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주려던 참이었다.

할 수 없이 사무실로 되돌아가 표를 가지고 다시 주차장에 돌아오는데 초등 학생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차 옆에서 무엇 인가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대수로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차에 가까이 가니 아이들이 뛰어 달아나는데 옆에 있는 자전거의 바퀴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순간 아이들의 장난을 직감하고 "이 놈들 이리와!"하고 외쳤다. 아니나 다를까 한 아이가 바람 넣는 곳의 나사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이었다. "너 왜 빼내었느냐? 다시 끼워 넣어라!"하고 그 아이의 행동을 지켜 보았다. 전혀 잘못했다는 표정이 아니었다. 한쪽에 선 도망간 아이들이 그 아이를 당연한 것처럼 놀리고 있었다. 순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다시 그 아이에게 "너 그것을 끼워 넣었지만 빠진 바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더니 고개를 떨군다. 그러는 동안도 다른 아이들은 계속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비원에게 데리고 가서 자전거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에게 잘못을 사과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 갔더니, 그 때까지 놀리고 있던 아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듯 모두 따라 들어 왔다.

경비원에게 부탁을 마친 후 다른 아이들도 꾸짖었더니 자기들은 하지 않았으니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다. 순간 나의 목소리가 커졌고,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곤 했지만 상관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친구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으므로 모두 잘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나던 한 아주머니가 큰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나 아이들을 용서해 주고 돌려 보내주면 안되겠느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설명 하니 이제는 그 아이들이 잘못했다는 사과문을 써서 자전거에 붙여놓고 돌아가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방법은 좋을 것 같으나 피해자인 주인도 이유를 알고 또 아이들도 충분히 반성하여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이 목적이라 설명했다. 그때 아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자전거 주인임에도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잘못을 인정하니 이제 그만 돌려보내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신다.

그 아이에게 물어 보았다. 기다리다 주인에게 사과하는 것과, 편지를 남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을까 하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편지를 써 놓겠다는 것이다. 편지에 그 아이의 전화번호, 학교 등을 기록해야 함을 설명했더니 이제는 기다려서 사과를 하겠단다. 이미 계산이 끝나 후에 더 큰 파장으로 몰려올(?) 난처한 것들을 생각한 것으로 판단되니 더욱 섭섭했다. 아직도 이 아이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했다. 그 아주머니가 이를 들었으면 어떠했을까?

그 아이의 선택대로 경비원들에게 부탁하고 자리를 떴다.

집을 향하면서 이 일들을 곱씹어 보았으나 역시 씁쓸함은 피할 수 없었다. 첫째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은 아니었는지, 그 아주머니 말씀처럼 그대로 돌려보내주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등등의 것들이었고, 둘째는 자전거 주인이 바람 빠진 자전거를 발견하고 영문도 모른 채 새 자전거를 책망(?) 또는 경비원들을 불평(?)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순간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지 불과 200미터 정도 가는데 15분 이상 걸린 듯 했다. 앞을 보니 더욱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분명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이들과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혹시 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순간 뒤 트렁크에 있는 펌프가 생각 났고, 다시 돌아가서 빠진 바람을 넣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과 함께 바람을 넣고 다시는 않겠다 약속하고 헤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었다. 바람을 다 넣고 일어서려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미 갔던 두 아이가 뒤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에게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말자고 약속하고 집으로 향했다. 불과 몇분 전까지 그렇게 막혔던 길이 언제였냐 싶을 정도로 뚫려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기도를 올렸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해주시니 감사 합니다."

만약 야구장 표가 생각이 안났다면, 또 사무실에 돌아 갔을 때 문이 그대로 열려 있었다면, 불과 몇초 일찍 차에 도착했었다면, 교통량이 그같이 많지 않았다면, 펌프가 생각나지 않았으면, 다시 돌아가 바람을 넣지 않았다면, 다시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불현듯 와 닿는 말씀, "남을 위하는 곳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역시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엔도 슈사꾸'의 문학세계

〈마음의 야상곡〉-〈깊은 강〉- 그리스도의 江

구순영 성도

동양의 아버지는 자식이 객지에서 탕자처럼 살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꾸짖고 어머니는 그 자식을 품는다. 즉 어머니는 그 자식의 선과 악, 기쁨과 슬픔 등을 품어 안는다.

이 모든 것을 용서받은 자식은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에게서 재생되는 새 생명, 이것이 동양의 구원이다. 엔도는 노년에 일본의 多福주의 풍속을 그리스도 안으로 품기 위해 동양인의 사고와 인간의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깊은 강〉에서는 性(SEX)과 聖을 동일시 하는 현란한 인도를 배경으로, 어머니로서의 그리스도가 인도 땅에서 인도인들의 고통과 좌절을 어떻게 품어 안는가를 그려 가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인도는 철저한 계급의식과 운명론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인도 땅으로 한 수도원을 나오게 된 그는, 인도인들에게 예수가 되어 주고자 한다.

병마에 고통 받는 인도인들을 돌봐주고, 죽은 시체를 묻어주고, 환자들을 강가로 데리고 가 손과 발과 얼굴을 씻어 주는 등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사는 갠지스강에서 속죄의식을 벌이는 인도인들을 사진 찍으려는 한 관광객을 막으려다 총에 맞아 죽고 만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도들이 일년에 몇 번씩 갠지스 강에 몸을 담가 속죄의식을 행한다.

즉 〈깊은 강〉은 모든 이들의 죄를 씻어 새 생명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스도 또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랑으로 품어 안는다. 즉 인간의 마음 깊이 도사려진 죄의 원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평생 일본인으로서 동양의 그리스도와 서양 그리스도의 부조화 문제가 과제이기도 했던 엔도는 신이 만든 '인간'이기에,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모든 본질-사랑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선과 악 등은 생명의 강으로 통할수 있음을 이해한 것이다.

산문집 〈마음의 야상곡〉에서는 노년의 사상적 결정이 겸손히 고백되어 있다. "태초부터 인간들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것이 있다. 나의 마음에도 그들에게 흐르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나의 문학은 나의 것만이 아니다. 모두의 것이다. 다시 말해 나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의 뒷받침이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의 영향을 바탕으로 조금씩 싹을 틔우고 키워서 겨우겨우 차례차례로 생명 열매 맺은 것이라는 실감을 버릴 수가 없다."

신이 만든 '인간'이기에,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모든 본질-사랑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선과 악 등은 생명의 강으로 통할수 있음을 이해

〈8면에서 계속〉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의 나눔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직원들과 끊임없는 나눔이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고 배당금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고 개인적인 나눔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직원과 끊임 없이 나누는 기업, 헤브론에 거하는 기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 한순간에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후로 국내 커다란 사고들(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한보사태 기타)등이 모든 사고들을 보아 오면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한 '메시지'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 전체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작은 우리회사 역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불의와 협조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초조해 하지 않고, 거짓된 수단을 쓰지 않고, 나만이 유익을 구하지 않고)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며, 자그마한 기득권이 나에게 있다면 모두를 봉사의 도구로 쓰는 자가 되려고, 헤브론에 거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었답니다.

토요일인 오늘도 내일의 말씀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97년 늦여름

97감사주일 예배 개최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97 감사주일예배가 9월7일(주일) 오전 11시,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역도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예배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영아부 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함께 감사로 드리는'열린예배,이다. 한편 점심식사 후에는 연극·찬양·율동·연주 등으로 구역별 한마당 대축제가 열린다.

정신여고 강당 기공예배

우리 교회의 숙원사업인 정신여고 강당 건축 기공예배가 지난 8월5일 화요일 오전 10시 정신여고 테니스장에서 많은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재철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땅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북한돕기헌금 보내와 코스타리카 시온교회

코스타리카 시온한인교회(금상호 목사)에서 북한돕기 헌금으로 1,286,529원을 주님의 교회로 송금해 왔다.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올해 교회학교 여름수련회가 지난 7월28(월)~30일(수) 영·유아·유치부를 시작으로 횡성수련원에서 개최됐다. 일정별로는 유년부 7월30(수)~8월1일(금), 초등부 8월14(목)~16일(토) 로 나누어 각각 실시됐다.

97교구별 수련회도 실시

교구별 여름 수련회도 교구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됐다. 1~3교구(1차) 7월28~30일, 4~6교구(2차) 7월30~8월1일.

"간증테이프 드립니다" 새사람 치유 선교회

가정의 홈닥터(치료기기) 제니센터치 포인터로 100여가지 질병, 통증, 염증을 치유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안내문·간증테이프 보내 드립니다. (☎545-8845 신재숙 집사)

차량주차 협조 바랍니다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를 당부합니다.

1. 교통법규를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지켜주십시오. (정문 통과및 주차시 방향등 표시)
2. 주차시 전면 주차. (잔디 및 수목보호)
3. 동승자 상·하차는 차량의 정체 방지를 위하여 주차 장소에서 상·하차.
4. 도로상 주차시는 기아 중립·핸드 브레이크 사용금지.

함·즐·함·울 발행 1주년을 맞으면서

함즐함울이 지난 96년 8월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함즐함울을 아껴 주시고 애정으로 구독하여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즐함울이 교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교우님들이 하나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 출판부에서도 교우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판부장 조원호 집사
편집담당 천경우 집사
교정담당 이기숙 집사

교 인 동 정

〈결혼〉
▲정지웅·이지혜: 59구역
▲조은덕·황혜선: 33구역

〈출국〉
▲권영식·손민정집사: 교환교수로 미국(65구역)
▲김용진·홍성현집사: 교환교수로 미국(49구역)

〈이민〉
▲남기원·전주연: 캐나다(17구역)

〈개업〉
▲김효수·정미란집사: 사몬타나 ☎208-0890 (65구역)
▲서경배재활의학과: 압구정동 청아스포츠 7층, 무릎클리닉 (O자형·X자형 다리교정) (20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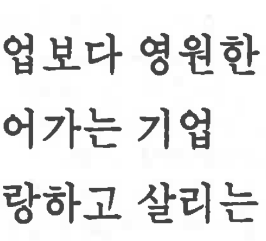
〈소천〉
▲김충선집사 모친(8월7일, 6구역)
▲신은희집사(8월12일, 64구역)
▲정용섭집사 부친(8월10일, 21구역)
▲이화정집사 부친(8월18일, 32구역)
▲김준규성도 모친(7월10일, 32구역)
▲장순길집사 부친(8월28일, 68구역)

〈이사〉
▲임채권·장금옥집사: 송파동 91-4 현진빌라 202호 (6구역)
▲박중규·박귀휘집사: 방배동 태화빌라 ☎532-7935 (77구역)
▲이봉우·김예곤집사: 안양 동안구 목련마을 신동아A 909-303호(19구역)
▲황정연·이지연B집사: 고양시 일산동 1336-7호 3층 (34구역)
▲성백술장로·오병희권사: 고양시 백석동 1227-8호 3층 (30구역)

〈입각〉
▲심우영집사: 총무처장관(79구역)

〈출산〉
▲박준석·한경성도: 득녀, 8월23일 (31구역)
▲황정연·이지연B집사: 득녀, 8월18일 (34구역)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



이종석 집사

말씀을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과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울렁이는 마음을 체험하신적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저렇게 놀랄 정도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선포될까? 원고 한자 보지 않으며 토씨 하나 틀리지 않으며 주일 말씀, 새신자반, 성숙자반, 로마서 강해 등 늘 감격의 말씀으로 새겨졌지만 기업 경영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답니다.

지난 94년도 9월,공장의 가동소리가 요란한 인천 남동공단 대창철강(주)의 준공식에서 좀체로 알아 들을 수 없는 소음과 여건 속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기업에 이윤과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소중했던 말씀을 나의 기업 경영의 목표이자 이념으로 정립하게 되었으며, 이 말씀을 회사 정문에 큼직하고 아름답게 인테리어하고 스포트라이트로 비추어 그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①거대한 기업보다 영원한 기업 ②정도를 걸어가는 기업 ③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기업

구체적으로 다시 열거해 내려가면 기업을 경영하는 그리스도인은

첫째, 거대한 기업이 아닌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거대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이 있게 마련입니다.

과대하게 포장하게 되고 관련된 상대와 뒷거래가 있게 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기업의 30년사를 보면 남아 있는 기업은 불과 몇 개 정도로 거대한 기업으로 남아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불개미입니다. 불개미는 집의 기둥 속에 들어가서 속을 파먹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날 한순간 집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거대한 것 그 자체만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거짓과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 영원한 기업으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크고 강하게 보이는 기업이 어느 한순간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 옵니다.

둘째, 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정도를 걸으면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물러나는 것 같고, 큰 이득이 못돼 보이고, 꼴찌 같지만 정도를 걷지 않고 한때 반짝 했던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도를 걷지 않을 때 승리하는 것 같지만 패배하고 맙니다.

정도를 걸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십니다. 백년, 이백년, 천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위한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들이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업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업은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당한 영업과 정당한 세금을 내야 그 세금으로 정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인이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야말로 그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탈세한 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 오염, 불량품 생산, 양심에 어긋나는 판매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를 유보(자본의 축적)해야 합니다.

세금을 다 낸 후에 남은 것 중에서 미래를 위해 유보 미래를 위해서 자금과 기술의 축적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넉넉할 때 아끼고 절약해서 여유자금으로 비축해야 합니다.

〈6면에 계속〉

거대한 기업보다 영원한 기업
정도를 걸어가는 기업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기업